

학습동행 우수멘토 참여 수기①

프로그램명	학습동행
<p>① 학습동행 멘토로서 구체적으로 어떤 임무를 어떻게 수행하였나요?</p>	<p>처음 모이는 자리에서 어떻게 학습동행이라는 프로그램을 알게 되었는지, 신청하게 되었는지를 물어보고 멘티 학생들끼리 자신의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였습니다. 처음 낯설어할 때, 제가 먼저 동행을 하기 전에 지내왔던 학교 생활, 동행을 하게된 계기, 동행 프로그램을 어떻게 참여하였고, 그 이후에 어떻게 지내고 있는 지 등의 전반적인 학교 생활에 대하여 나누었습니다. 이렇게 참가 동기와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얻고 싶은게 무엇인지를 이야기 나누는 시간이 많았습니다. 또한 지속적으로 주 1회 이상씩 만나면서, 과제물 정리나 시험 준비를 같이 하며 현재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분을 같이 얘기하고 의논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시험기간에는 시험 전에 학습 계획표를 작성하며, 목표를 정하고 하루 하루 어떤 학습을 얼마만큼 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작성하였습니다. 중간고사 이후에는 이 학습 계획표와 목표를 바탕으로 지난 학습계획표 중에서 실천한 부분은 무엇이었는지, 실천하지 못한 부분은 무엇인지, 다음 기말고사를 대비하여 학습계획표를 보완하려면 어떤 부분을 보완하면 좋을지 스스로 점검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전체 모임을 가지는 중에 개별 면담도 가지며, 현재 가지고 있는 고민이나 학교 생활, 진로, 학습 동기 등에 관한 부분에 대하여 물어보고 서로 공감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p>
<p>② 멘티 학생들과 한 학기 동행하며 느낀 점은 무엇인가요?</p>	<p>멘토로서 첫 활동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떨리기도 하고, 학습 코칭 선생님도 계시는데 학생 멘토의 역할이란 무엇일까,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까에 대하여 많이 고민하였습니다. 그러나 멘티 학생들을 만나고 나니, 고민이나 부담감보다는 편안한 마음으로 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저 새로운 모임에서 알게 된 선후배 혹은 친구처럼 서로의 일상을 공유하고, 같은 학교를 다니는 친구로 편하게 지낼 수 있었습니다. 일반적인 동아리나, 과에서 만나는 모임과는 다르게 동행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 약간의 강제성이 부여되는 점이 긍정적인 면이 있었습니다. 같이 공부해서 이번 학기의 성적을 올리려는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모이니 비록 과는 서로 다를 수 있어도, 서로의 고충을 잘 이해하고 서로를 응원할 수 있었습니다. 저 또한, 친구들을 보며 자극 받아 더욱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도 많이 들었습니다.</p>
<p>③ 멘토 경험은 나에게 어떤 도움이 되었나요?</p>	<p>멘토 경험은 참 즐거웠습니다. 친구들이 고민이 있을 경우 고민을 들어주는 것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 같이 고민하며 이야기하는 그런 과정이 즐거웠습니다. 제가 직접적인 해결책을 제시하거나 도움이 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고민이나 어려움을 다른 사람에게 말로 꺼내어 놓는 그런 과정이 스스로 생각을 정리할 수 있을 것이라 믿기 때문입니다. 또 처음 프로그램을 시작하며 다짐했던 목표들을 멘티 학생들이 이를 수 있도록 꾸준히 격려하는 과정이었는데, 격려하는 만큼, 신경 쓰는 만큼 호응을 잘해주어서 그런 점들도 참 고맙고 뿌듯했습니다. 나의 작은 관심과 노력이 친구들에게 와닿고</p>

	<p>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보람을 느꼈습니다. 또한 같이 활동하면서 저도 친구들을 통해서 자극도 받고 반성도 하며 저의 학교생활을 되돌아보는 계기도 되었습니다.</p>
<p>④ 멘토로서 앞으로의 새로운 다짐과 계획은 어떠한가요?</p>	<p>제가 멘티로서 처음 학습동행에 참가했을 때, 특히 학습코칭을 통해서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코칭 전문 선생님과, 여러 검사지를 통해 자신에 대해서 더 알게 되고, 선생님이 질문하는 것, 말씀해주는 것들이 저에게 꼭 학교의 학습 뿐 아니라, 진로에 대해서, 인생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하게 해주었습니다. 직접 경험한 이 좋은 프로그램을 혹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이 있다면 정말 추천해주고 싶습니다. 멘토로서의 제 역할과 제 다짐은 이러한 프로그램 참여를 꾸준히 지속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참여하기, 생각해보기는 쉬운 일이지만 참여했던 프로그램과 그 때 들었던 생각들, 다짐들을 다시 글로 정리하는 것도 중요한 일이지만 사실 쉬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활동 후 보고서 작성 같은 것도 옆에서 독려해주며 활동 이후에 빨리 정리할 수 있게 도와주고 싶습니다. 이렇게 정리한 글들이 단순히 프로그램 이수 조건에만 미치지 않고, 나중에 본인들의 일기와 같이 그때의 생각들이 정리된 글이 있다는 것이 좋은 기록이고 스스로의 자산과 같이 여겨지기 때문입니다.</p> <p>저번에 아쉬웠던 점을 통해 새롭게 계획하는 바로는 학습 이외의 부분들도 더 관심을 가지고 싶습니다. 저번 멘토 활동에서는 강의 출석, 과제물 제출, 시험 대비 학습 등의 학습적인 측면에서만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새롭게 한다면 학습 뿐 아니라 프로그램 초기에 작성했던 계획표를 바탕으로, 자기 개발이나 건강, 생활 습관이나 일상 등의 부분에서도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진행 과정들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p>
<p>⑤ 학사경고(낮은 학업성적)으로 고심하는 학생들에게 구체적인 조언을 해준다면?</p>	<p>학습에 대한 태도, 학습 동기, 지나온 학교 생활 등을 아울러서 학사경고를 왜 받게 되었는지부터 생각해 보는 것이 가장 첫 번째 일 것 같습니다. 개개인이 모두 다른 성격, 환경 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같은 과 같은 성적을 받았다고 해서 모두 같은 것이 아니란 것은 모두 공감할 것입니다.</p> <p>저의 경우에는 전공에 대한 흥미가 떨어지며 학습 동기가 크게 떨어져서 공부를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전과를 결심하며 마지막이라는 생각으로 학습 동행 프로그램에 참가하며 한 학기를 열심히 보냈고, 그 학기에 점수를 잘 받게 되었습니다. 전공에 대하여 흥미가 떨어진 것은 공부를 못해서였고, 잘하고 나니 또 흥미가 붙으며 재미있어졌습니다. 잘하면 재밌어지게 되고 재밌으면 잘하게 되는 그런 선순환 과정에 한번 들어서는 경험을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한번 극복하는 과정은 힘들 것이고, 그런 과정에 들어서고 싶다는 강한 동기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작게는 이번 학기 성적 향상에 대한 동기, 좋은 성적으로 대학교의 졸업, 졸업 이후의 삶에 대한 동기를 가지고 꿈을 그리다보니 저를 움직이게 하는 힘을 얻었습니다. 이런 과정을 겪는 데에 스스로 생각도 많이 하였지만, 학습 코칭 선생님이 조금 더 빨리 생각하고 답을 내릴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p> <p>단순히 이번엔 열심히 안 해서 그래, 다음번에 열심히 해야지 라는 마음가짐보다, 내가 왜 열심히 하고 싶은지, 저번에도 결심했지만 이루지 못했던 원인은</p>

	<p>무엇이었고 그 때와 지금은 무엇이 달라졌는지 본인에 대해 잘 파악하고 분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숭실대학교에 입학한 학생들이 학습하는 방법을 모르거나 학습에 대한 습관이 안 들어서 못하는 학생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본인이 왜 공부해야하는지를 스스로 충분히 납득시킬 수 있다면 학습과 성적은 자연스럽게 따라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p>
--	--